1-2. 소통하는 글쓰기 (댓글 시) 1학년 반 번 이름:

<기사문 1>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맹인 안내견'이 아니라 '맹견안내견'이 알려져 화제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개를 5년간이나 돌본 개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은 지난 22일(한국시각) 사람보다 나은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보도했다. 그레이트 덴 종의 6세 난 개 릴리는 속눈썹이 과도하게 자라 눈을 찔렀고 생후 18개월 때 결국 안구가 손상돼 실명했다. 하지만 함께 지내던 7세 난 개 매디슨이 그 때부터 릴리의 눈이 돼 줬다. 매디슨은 릴리의 곁에서 걷는 방향은 물론 배변 위치까지 안내해 줬고 밤에는 항상 껴안고 잔다. 현재 영국 슈롭셔에 위치한 애견구호단체에 맡겨진 두 개는 주인을 찾고 있다.

<2011.10.24.>

<동행>

보이지 않아도 내 다 안다
툭, 하고 목줄 당기면
삼나무 숲에 가자 하는 것임을

보이지 않아도 내 다 안다
행여 목이 조이지 않을까
때때로 돌아보는 선한 눈을

저무는 하늘을 볼 수 없는 나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그래도 내 다 안다
툭, 하고 목줄 당기는 그때가
우리 아쉽게 돌아가야 할 때임을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쓰고, 고른 이유를 3줄 이상 쓰시오~~

소감 나누기 ★ 느낀점을 5줄 이상 쓰시오~~

<기사문 2>

고통에 절규하는 새끼 곰을 죽이고 자살한 어미 곰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 북서부의 한 농장에서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려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호수를 꽂아 수시로 쓸개즙을 뽑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농장 일꾼이 한 새끼 곰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채 쓸개즙을 뽑아내고 있었다.

이날 새끼 곰의 절규에, 어미 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곰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 철창을 부수고 탈출했고 새끼 곰에게 뛰어갔다. 농장 일꾼은 이를 보고 혼비백산해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달려온 어미 곰은 새끼 곰의 쇠사슬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쇠사슬을 끊을 수 없었던 어미 곰은 새끼 곰을 끌어안고, 질식시켜 죽였다. 자신의 새끼 곰을 죽인 뒤, 이 어미곰은 스스로 벽으로 돌진했고 머리를 부딪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러민바오등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곰 모자의 슬픈 이야기는 인터넷 확산됐고, 이를 계기로 산 채로 곰의 쓸개즙을 빼내는 잔인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2011.9.2.조선일보>

<반달>

너의 가슴팍에
반달을 물려준 것이
이 어미의 죄다
숲에서 포획된
내 아버지 방심이 죄다

죽기 전 아버지는
산딸기를 그리워했다
농익은 다래를 그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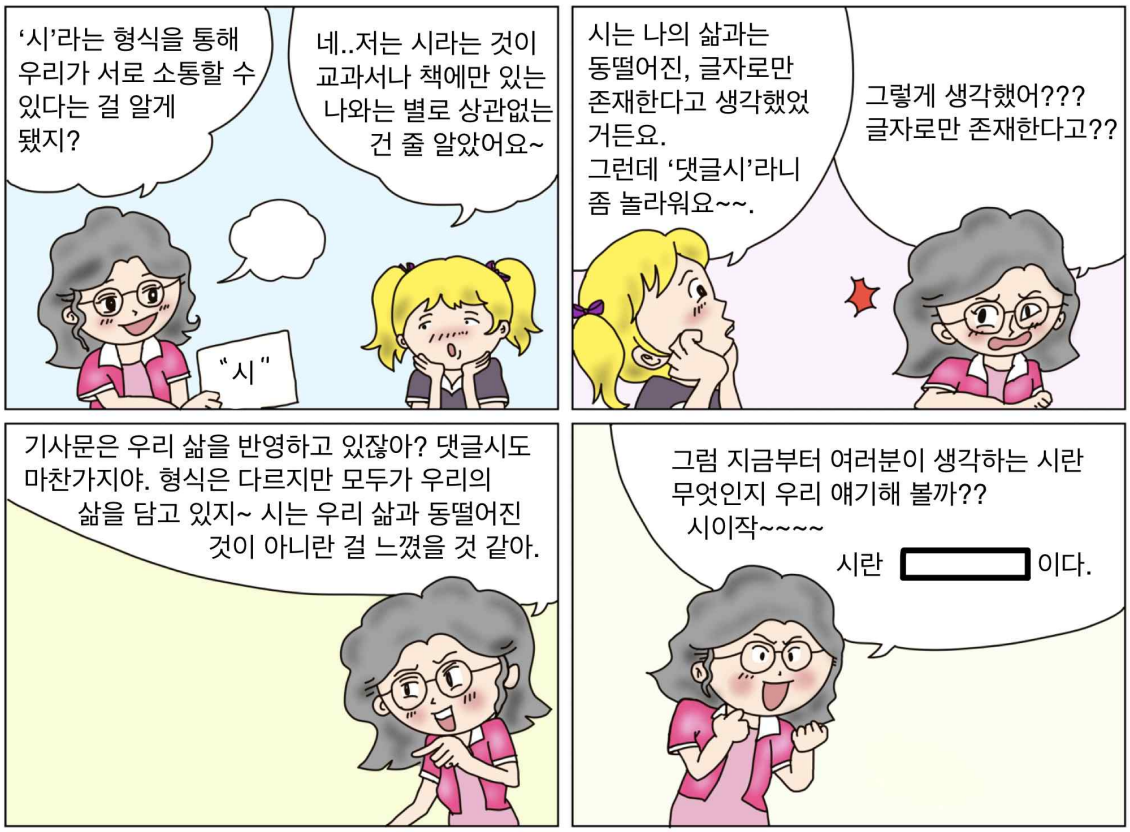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낼 시간
아, 깊은 산 고목 틈에 출렁일
아까시 꿀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쓰고, 고른 이유를 3줄 이상 쓰시오~~

소감 나누기 ★ 느낀점을 5줄 이상 쓰시오~~

<기사문 3> 학생 작품

기사문	댓글 시
제목: 그날의 슬픔은 현재진행형… 주말 광화문광장서 세월호 4주기 추모 집회 열려. 2018. 4. 14. 국민일보.	지독하게…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4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다. 오는 16일은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4년 되는 날이다.	나는 지독하게 겁이 많은데. 지나가는 개만 봐도 사지가 떨리는데 나는 광장행 버스를 타겠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전명호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4년간 철저히 깨우친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정권의 힘으로, 단체의 힘으로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민주정권을 앉힌 것은 촛불 국민의 깨어있는 정신과 마음"이라고 했다.	나는 지독하게 엉덩이에 살이 없는데 맨 바닥에 앉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픈데 나는 광화문 광장 차가운 바닥에 오래도록 앉겠다.



내가 생각하는 시란 _____ **이다.**

--> 왜냐하면 (_____ **)**

이기 때문이다.

모방시 쓰기

위의 댓글시 3개 중 하나를 골라 모방시를 써 봅시다.^^
평가기준을 잘 보고 써 보세요~~

고른 시 제목:

내가 만든 제목:

댓글시 쓰기

원하는 기사문 하나를 선택해서 풀로 붙이거나 손으로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시를 씁니다. (시가 길면 칸을 나누어 쓰세요~)

제목: